

「점토대토기, 그리고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대한 코멘트

박 순 발
충남대 고고학과

최근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점토대토기문화의 상한 연대를 올려보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그러한 견해의 문제점을 적출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기 철기시대’를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별도의 시대로 설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역연대 상의 기간을 약 300년 정도로 설정한 견해에 대해서는 토론자도 공감하여 적극 찬동한다.

이러한 논지의 본 논문이 더욱 견고한 논거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한다.

1. 한반도 발견 점토대토기 유적에 대한 단계 설정과 관련된 것이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유구석부와의 공반관계를 들고 있으며, 세형동검이 공반되는 것을 3단계로 설정하였다.

(1) 우선 유구석부가 과연 점토대토기와 무관한 재지계의 석기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물론 涼泉문화에서는 유구석부의 예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용천 신대리·의주 원하리·영변 세죽리·신창 토성리·북창 중리·사리원 도마산 등의 예로 볼 때 유구석부가 남한지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을 가능성은 의문이다. 그러므로 남한지역에서 유구석부를 재지계로 설정하고 이와 공반여부를 근거로 단계를 달리 설정하기보다는 토기상의 다른 속성등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2) 세형동검은 그간 주로 분묘에서 출토되어 점토대토기문화의 분기 설정에 참고하지 못하였으나 합천 영창리 등의 예로 보아 본 논문에서처럼 점토대토기문화의 양상 파악 문제에 접근하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 논급된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아직 세형동검이 공반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 설정을 위해서는 세형동검 공반 점토대토기의 구체적인 토기상을 근거로 대비 설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지역 파급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燕과 齊의 요서진출로 야기된 요중지역 涼泉문화가 기원전 6세기말·5세기초에 한반도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제 1단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용천 신암리나 평양 남경 출토 토기는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이입 루트와 관련하여 압록강하류-청천강상류-원산만-한강상류의 루트의 가능성을 근거 부족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산만과 가까운 양양 池里 점토대토기는 발표자도 단계 설정에 근거로 보면 유구석부가 공반되지 않았으므로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앞 2번 질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동강유역의 남경유적 출토품도 점토대토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 시기의 유입 루트가 해로만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 루트는 가락동유형 등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의 유입 경로와도 다르지 않으므로 유독 점토대토기문화만 이 루트를 따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

4. 4단계의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과 관련한 것이다. 발표자의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요동반도지역에서 새롭게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한반도지역에서 자체 발전하여 삼각형점토대토기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구연 단면이 원형인가 삼각형인가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으며, 원형점토대토기도 철기를 공반하는 예가 있어 갑자기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철기와 공반된 예들은 구연부의 끝이 외반된 것이 눈에 띈다. 토론자는 단면형 그 자체와 함께 구연단부의 외반정도를 기준으로 시기적 선후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여긴다. 아무튼, 이러한 점 등으로 볼 때 삼각점토대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와는 또 다른 계기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

5. 마지막으로 점토대토기문화 한반도 이입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제 1단계 : 기원전 700년경 한 차례 압록강하류유역·대동강유역에 한 차례 파급.

제 2단계 : 기원전 300년경을 전후한 시점에 한강유역 이남으로 본격적 파급.

제 3단계 : 기원전 200년경 전후한 秦·漢 교체기 철기문화와 함께 주로 금강유역의 남한지역 파급. 이 가운데 3단계만이 초기철기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